"수입콩나물 콩, 공매값 낮아 시장교란 국영무역 권한 생산자단체가 맡아야"

aT(농수산물유통공사)가 수입 콩나물 콩을 국내산 도매가격보다 턱없이 낮게 공매, 국내 농산물시장을 교란시키고 있어 콩나물 콩에 대한 국영무역 권한을 관련 생산자단체에 넘겨줘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열린우리당 김우남 의원(제주 · 북제주을 · 사진)은 지난해 9월 18일 '콩나물 콩 공매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aT는 2005년에는 TRQ(저율관세할당) 방식으로 수입한 10,451톤의 콩나물 콩을 국내산 도매가격보다 3.7배나 낮은 1㎏당 1,254원에 공매, 국내산 가격을 떨어뜨리는 등 농산물시장을 크게 교란시켰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지난해의 경우 국내산 콩나물 콩 5,693톤의 도매가격이 1㎏당 4,303~4,966원에 달했으나, 수입 콩나물 콩이 낮은 가격에 공매처분돼 농가 수입이 크게 줄었다"면서 "2006년에도 5월 말까지 국내산 콩나물 콩은 3,607~4,243원에 거래됐으나 6월 이후 2,300원으로 급락했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지금이라도 콩나물 콩에 대한 국영무역 권한을 관련 생산자단체(조합)에 넘겨 국내 농산물 보호와 가격안정이라는 당초의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민신문 06. 9. 22)

콩나물 콩 생산량 증가 농협 소비확대 안간힘

콩나물 콩의 재고 처리를 위해 농협이 안간힘을 쏟고 있다. 2006년 5월 8일 현재 농협중앙회 등에 따르면 콩나물 콩의 지난해 생산량은 18만 3,338톤으로 2004년 13만 8,507톤보다 4만 4,000여톤 많다. 2005년 재배면적이 크게 증가한 데다 작황까지 좋아 물량이 30% 이상 늘었다.

이에 따라 제주지역 등 주산지 농협이 긴급 수매 및 소비 촉진에 나섰지만 소비량이 그다지 늘지 않는 데다 기온이 올라가면서 품질 하락과 이에 따른 보관비용 증가로 농가소득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농협은 농림부와 공동으로 (사)대한두채협회 등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제주지역 콩나물 콩 1,000톤에 대해 수매 협조를 요청하는 등 시급히 처리해야 할 물량 5,700톤에 대한 처리 방안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양곡유통센터를 중심으로 콩나물 재배기(시루) 보급에 나서 농협 판매장과 영업점 등에서 400g들이 소포장 콩나물 콩 2개를 구입하면 콩나물 재배기 2개를 무료로 제공하는 등 소비 활성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이흥범 농협중앙회 정책양곡팀장은 "국산 콩으로 재배한 콩나물의 소비 확대를 통해 건강도 챙기고 콩 재배농가의 어려움도 해소해 달라"고 당부했다.

(농민신문 06. 5. 10)

지역농협 두부 · 콩나물 '아름찬' 공동브랜드로 유통

농협중앙회는 그동안 몇몇 지역농협이 개별적으로 생산 · 판매하던 두부와 콩나물을 지난해부터 공동브랜드 연합사업 방식으로 유통키로 하고, 최근 구체적인 세부계획 마련에 들어갔다.〈아름찬〉공동브랜드 연합사업은 지역농협이 생산한 제품을 중앙회가 품질관리와 판촉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현재 김치 · 고추장 · 참기름 · 들기름 등 4개 식품이 이 방식으로 생산 · 판매되고 있다.

이번 두부와 콩나물의 추가로 공동브랜드〈아름찬〉이 적용되는 농협 가공식품은 모두 6개로 늘어나게 됐다. 농협중앙회는 공동브랜드 제품을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2개 품목씩 늘려나가 오는 2010년에는 모두 12개 품목을〈아름찬〉으로 유통시킨다는 방침이다.

농협 가공식품의 이 같은 공동브랜드화는 시장환경 변화에 대비한 자구책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는 안전성이 중시되는 식품시장에서는 소비자의 인지도를 이끌어 내기 위해 규모화된 마케팅 전략이 필수적인데, 조합 개별 브랜드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 따라서 단일브랜드화를 통한 규모화된 마케팅으로 승부해야 한다는 인식이 산지에서도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농협은 풀이하고 있다.

(농민신문 06. 3. 31)

무기질 · 미네랄 풍부한 웰빙 식품 '새싹땅콩'

'새싹땅콩'이 웰빙식품으로 각광받고 있다. 이는 땅콩을 발아시킨 새싹나물로 경기 양평의 한국땅콩나물산업(주)이 최근 국내 최초로 선보였다. 신영택 사장은 "지난해 일본에서 재배기술을 이전해 특허출원했다"며 "출시와 함께 문의가 쇄도하고 있는 만큼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육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새싹땅콩은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열량은 낮으며 각종 무기질과 미네랄, 노화방지 기능의 토코페롤 등이 함유됐다고. 신 사장은 "유명 식품회사가 시험한 결과 아삭아삭 씹히는 맛이 좋고 형태가 변하지 않아 한식은 물론 중식, 일식재료로 제격이라는 평가를 받았다"며 "국거리와 튀김, 나물, 샐러드, 김치, 조림, 피클 등 다양하게 사용된다"고 설명했다.

땅콩산업(www.peanutsprout.com)은 현재 240평(40평×6단)에서 하루 150kg을 생산한다. 트레이 포장(200g)으로 판매하는데 생산량 부족으로 양재 하나로클럽 등에만 공급한다. 대기업 식품회사와 백화점, 할인점, 홈쇼핑 등에서 원하지만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하루 300kg을 생산하는 600평(100평×6단) 규모의 2공장을 가동했고 하루 1.5톤 생산규모의 2,000평 공장을 준공하기도. 신 사장은 "하루 2톤을 생산해도 수도권 공급에 그친다"며 "지방 공급은 6개 권역의 농업경영인들과 연계해 생산 · 공급기반을 갖춘다"고 말했다. 향후 유통과 수출을 전담하는 별도법인을 설립해 일본과 중국시장에도 진출할 방침이다.

문의 : (031) 772-4848

(농어민신문 05. 5. 2)